

## 우취류(吳濁流)의 장편 소설 『아시아의 고아』(『アジアの孤児』)\*에서 드러나는 식민지인의 정체성 연구

신민영\*\*

### [국문초록]

우취류의 『아시아의 고아』(1943년~1945년)는 당시의 국어였던 일본어로 씌어진 작품으로, 타이완 출신의 식민지 지식인 후타이밍(胡太明)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후타이밍의 변화를 한족(漢族)의식의 회복이나 고아의식의 극복으로 해석하면서 대부분 한족(漢族) 내셔널리즘의 언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집필된 1940년대는 타이완이 식민 지배를 받은 지 이미 40여 년이 흐른 시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시의 젊은 지식인들의 고민은 소위 민족주의적 흐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식민지인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한 세계와 주어진 환

\* 본고에서 인용문은 모두 한글 번역본 【吳濁流(2012), 송승석 譯, 『아시아의 고아』, 도서출판 아시아】의 쪽수를 따른다.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비교문학협동과정

주제어: 1940년대 식민지 소설, 타이완, 우취류(吳濁流), 『아시아의 고아』, 식민지인 정체성, 이중감시, 이중배제

Colonial novel of the 1940s, Taiwan, Wu Zhuoliu, *Orphan of Asia*, colonial identity, double surveillance, double exclusion

경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젊은이이기도 했다.

한편, 작품의 배경이 타이완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타이완은 일본 제국과 중국 대륙과의 관계망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타이완 식민지인의 정체성은 타이완섬 내부와 타이완섬 외부에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다. 타이완섬 내부에서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서 식민자 VS 식민지인/일본인 VS 타이완인(중국인)이라는 이항구도가 두드러진다면, 타이완섬 외부에서는 중국 대륙이라는 제3항의 개입으로 상황은 보다 복잡해진다. 타이완은 중국 대륙과 일본 모두에게서 ① 이중으로 배제되고 ② 이중으로 감시받으며 ③ 사이에 끼인 존재로서 강제되었다. 작품은 주인공 후타이밍을 통해 타이완인/타이완공동체의 지난한 자기 정체성 찾기의 여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식민주의/제국주의 그리고 내셔널리즘 모두를 비껴가는 해방의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 1. 들어가며

중일전쟁을 시발점으로 일본 제국의 모든 시스템이 전쟁 총동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식민지에 대해서도 황민화(皇民化) 정책이 보다 공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일환으로 공적인 담론장 역시 '국어'(일본어)로 더욱 철저하게 통제되었다. 따라서 1937년 이후 식민지에서 발표된 문학 작품들 역시 대다수가 제국어로 쓰여졌다. 하지만 이 시기 식민 제국어로 쓰여진 작품들은 대개가 '민족문학'의 암흑기에 생산된 어용문학이나 친일문학【혹은 한간문학(漢奸文學), 황민문학(皇民文學) 등】으로 치부되어 외면받기 일쑤였다. 그러나 내셔널리즘의 막을 걷어내면 이 시기 작품들에서 다른 면모가 드러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1930년대 후반 / 1940년대는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지 40여 년이 지난 시기이며, 한반도의 경우 역시 30여 년이 흐른 때이다. 그러므로

식민 점령 초·중기의 격렬한 저항, 식민자와 식민지인의 극명한 대립이라는 열쇠어를 그대로 가지고 이 시기의 작품을 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937년 이후'는 식민 점령 중·후반에 해당하는데, 직전 왕조를 중장년까지 경험한 세대는 이미 거의 사라진데다가 태어나면 서부터 식민지인이었던 세대 역시 청장년층에 접어들었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른 시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비교적 활발하게 사회적 활동을 하던 세대에게 과거 왕조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나 기억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대의 고민이 소위 "민족적인" 움직임과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전 세대와 겹치면서도 다른 방향과 번뇌가 치열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1940년대 작품들 안에서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우쥬류의 『아시아의 고아』는 작가가 1943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1945년에 완성한 작품으로 총 5편으로 구성된 장편소설이다.<sup>1)</sup> 이 소설의 원제목은 『후즈밍』(胡志明)이었지만, 일본에서 출판되면서 『아시아의 고아』(アジアの孤児)로 제목이 변경되었다.<sup>2)</sup> 『胡志明』은 당시의 '국어'인 일본어로 씌어졌는데, 실제로는 1946년 '타이완'에서 가장 먼저 '일본어'로 한 편씩 차례로 출판되었다.<sup>3)</sup> 그러나 일문(日文) 서적의 출판을 금지하는 국민당 정부의 방침 때문에 재판(重刊)을 요

- 1) "마지막 5편에는 <脱稿於1945年6月22日>이라고 적혀 있다."(河原功(2007), 張文薰譯, 『吳濁流의 《胡志明》 연구』, 『臺灣文學學報』 10期, p. 82).
- 2) 한편, 중문판에 실린 작가의 글에는 "胡志明"이 "누군가의(베트남의 호치민: 인용자) 이름과 동일하여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 『아시아의 고아』(アジアの孤児)로 바꾸어 일본에서 출판했다"고 밝혀 놓았다.
- 3) 河原功(2007), 張文薰譯, 『吳濁流의 《胡志明》 연구』, 『臺灣文學學報』 10期 참조

第一篇		國華書局	1946년 9월 3일
第二篇	悲戀の卷	國華書局	1946년 10월 10일
第三篇	悲戀の卷(大陸篇)	國華書局	1946년 11월 20일
第四篇	桎梏の卷	民報總社	1946년 12월 25일
第五篇	癡狂の卷	學友書局	1948년 1월 10일

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문판으로는 다시 출판되지 못했다.

『아시아의 고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타이완과 중국 대륙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개가 중국의 한족(漢族) 의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이 두드러진다. 하나는 『아시아의 고아』를, 비협력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소극적인 저항에서 적극적인 저항으로 변화하는 주인공 후타이밍(胡太明)의 성장과 발전의 서사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여기에서 적극적인 저항 의지는 불멸하는 ‘한족(漢族)의 혼’에 근거한다. 루스페이(卢斯飞)의 말을 빌리자면, “작품 말미에 후타이밍의 모습은 루선의 『광인일기』의 광인과 같다. 겉보기에는 정신차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람들의 정신을 변칙 들게 만드는 ‘풍자시’(反詩)를 썼다. 이는 온갖 고난을 겪은 후에 비로소 우유부단하고 고뇌 속에 배회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마침내 식민주의와 철저히 결별한 모습을 의미하는 동시에, 중국인들의 높은 정신력, 결집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황민화운동의 철저한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다.”<sup>4)</sup> 또한, 장창(張暢)·천잉(陳穎) 역시 「언어의 중첩: 일본 통치기 타이완 소설 속의 은유」(言说空间的折疊: 日据时期台湾小说中的隱喻)<sup>5)</sup>에서 비슷한 논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논문의 필자들은 주인공의 이름인 후즈밍(胡志明) 【혹은 후타이밍(胡太明)】이라는 은유의 비밀에 주목하며, “타이완인이라는 말은 바로 명조(明朝)의 유민(遺民)을 가리킨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은유는 우취류의 깊은 애국심을 담고 있다. 그 몸은 비록 억압받는 암흑의 시대에 놓여 있지만 작가는 여전히 불멸하는 ‘한족(漢族)의 얼’이 살아있는 강렬한 중국의식과 뜨거운 피를 흘리며 죽기를 각오하는 투쟁 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외에도 스이닝(石

4) 卢斯飞(1996), 『寒凝大地发春华-论吴浊流的知识分子题材小说』, 『广西教育学院学报』 2期.

5) 張暢·陳穎(2011), 「言说空间的折疊: 日据时期台湾小说中的隱喻」, 『泉州师范学院学报』.

一宁)의 「우취류의 중국 민족주의 문학사상」(吳濁流的中国民族主义文学思想, 2003), 황완화(黃万华)의 「전쟁 시기 타이완 문학의 저항의식」(战时台湾文学的抵抗意识, 2004) 등도 한족(漢族) 내셔널리즘을 렌즈로 하여 『아시아의 고아』가 갖고 있는 항일 저항의식을 다루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의 고아』를 주인공이 타이완인으로서 경험하는 ‘고아의식’과 그 극복의 과정으로 독해하는 시각이다. 왕이춘(王宜春)은, 후타이밍의 정신 착란은 사실 의식적 각성의 표현이며, 타이밍의 사유가 타이완 본토의 역사 운명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이완과 대륙이 이민족의 통치에 공동으로 저항하여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는 역사적 도정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작품 말미의 타이밍의 묘연한 행방을 1960년에 우취류가 쓴 『길은 아득하고 멀다』(路迢迢)와 함께 읽으면서 타이밍이 대륙으로 건너간 것임에 틀림없으며, 이것이 곧 ‘고아’가 마침내 모친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읽어낸다.<sup>6)</sup> 류홍린(劉紅林) 역시, “우취류의 장편소설 『아시아의 고아』는 일본 제국의 타이완 지배 시기의 지식인 후타이밍이 순종적인 식민지인에서 전사(戰士)로 변화해가는 인생 여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바로 ‘고아의식’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현재 타이완 분리주의 세력에 의해 ‘타이완 독립’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사실 우취류가 후타이밍이라는 인물을 창조해냄으로써 제시하고 싶었던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타이완 분리주의자들처럼 왜곡된 형태 곧 소위 ‘타이완인 의식’이 아니라 ‘고아의식’의 극복”<sup>7)</sup>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에춘메이(岳春梅)의 「타자의 구원에서 자기 구도에 이르기까지 : ‘고아의 자기 뿌리 찾기’와 구원의 여정 - ‘고아의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从他救到自救: 孤儿的寻根与救赎之旅-“孤儿”意识新论, 2010), 차오휘민(曹惠民)의 「서로 다른 역사적 고난의 시기에 씌어진 『아시아의 고아』와 『니환

6) 王宜春(2002), 「汉魂终不灭: “孤儿”寻求回归“母亲”的怀抱-浅析吴浊流」, 『《亚细亚的孤儿》』 3期

7) 刘红林(2005), 「“孤儿意识”论-吴浊流《亚细亚的孤儿》分析」, 『华文文学』 3期.

즈』 비교하며 읽기』(萧条异代不同时-『亚细亚的孤儿』与『倪焕之』对读, 2010), 위에춘메이(岳春梅)·리롱(李蓉)·리단(李丹)이 함께 연구한 「방황하는 가운데에서도 지켜내다: 고아의 자기 뿌리 찾기와 구원의 여정」(在飘零中坚守: 孤儿的寻根与救赎之旅, 2011)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한족(漢族) 내셔널리즘, 중국 내셔널리즘의 언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한족(漢族) 내셔널리즘이 발생하고 유통되기 시작한 시점이 1911년 신해혁명 이후부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보다 16년 전인 1895년 이미 일본에 할양됐던 타이완섬에 거주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孝)와 충(忠)에 근거한 조상에 대한 존경, 청조(淸朝)를 향한 충성심이 이민족 통치에 대한 저항 정신을 뒷받침해주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더욱이 타이완인들의 저항 정신이 곧 근대적인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국민국가(nation-state)의 건설과 수호(守護)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족(漢族) 내셔널리즘의 시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논문을 시작하고자 한다. 주인공 후타이밍은 타이완 출신이다. 타이완은 청조(淸朝)의 중앙집권체제 아래에 속해 있다가 청일전쟁의 패배로 일본 제국에게 할양되었다. 한편, 청조(淸朝)는 서구 열강 및 일본에 의해 반(半)식민지화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명맥을 유지하다가, 1912년 쑨원(孫文)의 삼민주의에 기초한 중화민국(中華民國)의 건설로 멸망하였다. 다시 말해서 청조(淸朝)는 외부 세력에 의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 혁명 세력에 의해 다른 체제의 국가 건설로 교체되었다. 이는 곧 타이완인들이 생각하는 조상의 나라는 타이완 섬 외부에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에서는, 한반도의 식민지인들이 조선이 완전히 멸망한 가운데 '식민자와 식민지인' / '문명과 야만' / '근대와 전근대'라는 두 항 사이의 관계망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강요받았던 것

과는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타이완의 식민지인들은 ‘중국 대륙’이라는 제3항이 개입된 구도 아래에서 ① 이중으로 배제되고 ② 이중으로 감시 받으며 ③ 사이에 끼인 존재로서 규정되었다. 우쥬류의 『아시아의 고아』는 후타이밍이라는 식민지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내적 갈등과 방향을 묘사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후타이밍의 고뇌에 찬 시선을 쫓아가며 타이완 식민지인들의 지난한 자기 정체성 찾기에 집중하고자 한다.

## 2. 펼치며

### 2.1. 타이완섬 내부의 이항 구도

– ‘일본인’ VS 타이완인(중국인) / 식민자 VS 식민지인

#### 2.1.1. 외부 세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세대

소설은 후(胡) 노인과 그의 손자 후타이밍(胡太明)이 천용경을 넘어 윈티서원(雲梯書院)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윈티서원의 훈장인 평(彭) 선생은 후 노인의 동학으로 과거 수재(秀才)에 급제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종래의 등용길이 완전히 막혀 버리자, 윈티서원에 눌러앉아 아이들을 가르치며 허송세월 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번에 후 노인이 윈티서원을 찾은 것은 손자가 한학(漢學)을 배우길 바라서인데, 시골의 서방(書房)들이 전부 문을 닫아 윈티서원을 빼고는 달리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담보하고 있는 평 수재와 윈티서원은 후타이밍의 시선 아래에서는 다른 수사(修辭)들과 연계되어 인식된다. 윈티서원이 “어두운 건물”, “어두침침한 실내”, “희미하고 작은 불빛”, “침침한 불빛”과 연동된다면, 평 수재는 “비쩍 마른 얼굴은

언제나 창백"하고 "뼈만 앙상한" 형용사들과 함께 등장한다. 게다가 '후노인'의 세대에 속하는 인물들은 하나 같이 '아편'과 관련되어 설명된다.

- ① (후 노인의) 수연통(水煙筒)에 물을 바꿔주는 게 타이밍의 유일한 일과였다(28).
- ② 펑 수재는 아편 피우는 것 말고는 세상 그 어떤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26).
- ③ 골수까지 아편중독자라 분가할 당시 천수백 석에 달하던 재산을 깡그리 아편 연기로 날려버린 사람이었다. 그 덕분에 엄연히 후촨통(胡傳統)이란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아편쟁이로 불리고 있었다(32).

후타이밍은 "그들에게서 망해 가는 이들의 어떤 숙명 같은 것을 느꼈다."(32) 이에 반해, 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인물은 아편쟁이의 '아들' 즈다(志達)이다. "즈다는 보통 다룬(大人)이라고 불리는 순사보였다. 그는 일본어도 아주 잘했다. ... 담배는 시키시마(敷島)를 피우고 새하얀 손수건을 사용했으며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고 다녔다. (...) 뿐만 아니라 즈다가 지나가면 샴방 같은 향긋한 냄새가 났다. 그것은 시골 사람들이 일본 냄새라고 부르는 일종의 문화적인 냄새였다."(33)

펑 수재가 돌연 윈티서원을 닫고 번계(蕃界) 근처의 다른 서방으로 옮겨가버리자, 후타이밍은 '어쩔 수 없이' 공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가 공학교에 대해 가진 첫 인상은 "교내에는 생기가 넘쳤고 운동장과 교실은 하나같이 널찍하고 환했다", "일시에 눈앞이 확 트이는 것 같"다는(41)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사진을 찍으면 혼을 빼앗긴다는 말을 믿지 않게 되었고(41), 스스로 변발을 자르고 맨머리를 하고 다녔다(50). 뿐만 아니라, 후타이밍은 짧지만 한학(漢學) 교육을 받았고 타이완의 전통적인 가풍 속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일본인 교사·신교육·신문물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호의를 갖게 되었다. 이를 두고,



차오휘민(曹惠民)은 “일본은 타이완의 사숙(私塾)을 폐하고 신식 학교를 열었는데, 이것은 문명의 외투를 입은 동화 교육이었다, 신식학교를 나온 후타이밍이 바로 그 예이다, 그는 ‘근대’ 청년일 뿐만 아니라 ‘황민’ 청년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후타이밍의 판단은 빠른 문명화를 통해 해방을 기도(企圖)하려 했던 움직임과 구별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식견이 좁아 황민화정책에 경도된 어리석음과도 분명 다르다.

소설 말미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시점에 후타이밍의 나이가 마흔 전후<sup>8)</sup>로 소개된 것을 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던 세대이다. 후타이밍이 속한 이 세대는 과거 왕조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세대와도 다르고, 윗세대의 경험과 지식, 가치관 등에 순응 혹은 갈등이라는 방식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 세대와도 다르다. 손자 세대에 해당하는 후타이밍은 공동체의 운명이 격변하는 소용돌이 한가운데를 통과한 할아버지 세대 / 아버지 세대 모두에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바꿔 말해서, 후타이밍의 세대는 인식적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두 세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판단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판단과 지향은 그를 둘러싼 외부 세계에 대한 내적 성찰과 이성적 사고를 거쳐 신중하게 도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변화하는 외부 세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사고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후타이밍은 ‘한학(漢學) 교육과 신식 교육’ / ‘사숙과 공학교’ / ‘전통문인과 일본인 교사’ 모두를 경험한 인물이다. 텍스트 안에서 그의 사고는 ‘① 어두침침함 VS 날찍하고 환함 ② 앙상하고 창백함 VS 생기’ 라는 구도 위에서 일본 제국이 타이완

8) 전시 상황이 갈수록 격렬함을 더해가면서 이번엔 생산지원병제도가 타이완섬 전체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타이완의 십팔 세 이상 삼십팔 세 이하의 남자는 모두 그 대상이 되었다. (...) 그러나 타이밍은 이미 연령을 초과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337, 밑줄 인용자).

공동체에 개입한 이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고아』를 황민화정책에 미혹된 주인공이 온갖 고난을 겪으며 그 허위를 깨닫고 일제에 저항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텍스트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이나 황민화정책의 위선과 알량한 논리는 텍스트 초반에도 이미 여러 곳에서 비판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타이밍은 일본 제국이나 식민 당국 자체에 대해 오로지 적대적인 입장만으로 일관하지 않는다. 그의 부정적 입장은 특정한 인물이나 행위, 부적절한 대우에 한정되어 드러날 뿐이다. 오히려 그의 관심사는 자신이 속한 세계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다. 공학교/국어학교 사범부를 갓 졸업한 어린 청년에게 유일한 관심은 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 2.1.2. 식민주의적 위계를 체념하는 세대

후타이밍의 세계관은 변화된 삶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거기에 적응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1920년대 후반 / 1930년대는 식민주의적 계층 구조를 지탱해주는 차별과 배제를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대신, 동화와 통합의 필연성을 강조하며 일본 제국 아래 하나의 '국민'을 선전하던 시기이다. 식민주의 논리는 훨씬 교활해졌고, 식민주의적 위계 구조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교묘하게 은폐되었으며, 식민지 사회는 제국의 '변경(邊境)'으로 재의미화되었다. 개인을 둘러싼 세계의 의미가 변하면, 개인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와 대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후타이밍은 자신을 오로지 식민지인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세계 속의 개인-무한한 가능성이 허락된 동시에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는 개인 일반으로 이해했다.

그렇다고 해서 후타이밍이 식민주의의 논리와 차별적인 위계를 완전

히 망각해버린 것은 아니었다. 이는 후타이밍과 나이토 히사코(内藤久子)의 애정 구도에서 그대로 발견된다. 그는 “그녀는 일본 사람이고, 자신은 타이완 사람”이라는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63) 거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나이토 히사코에 대한 연정이 깊어질수록, 후타이밍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엄연한 사실”(64)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내 피는 더럽다. 내 몸 안에는 무지하고 음탕한 여인을 첩으로 둔 아버지의 더러운 피가 돌고 있다(…)”(66)며 자기혐오를 드러낸다. 후타이밍의 괴로움은 “민족이 다르다”는 언술이 담보하고 있는 식민지 사회 내에서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에 하나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박봉에 시달리는 한심한 생활 능력으로 일본 여자인 히사코가 요구하는 높은 생활수준을”(64) 맞출 수 없으리라는 점 역시 예상하였다. 즉, 후타이밍은 ‘재의미화된’ 세계에서 자신에게 역시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희망과 그 ‘가능성’이 허울 좋은 구호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담지하고 있었다.

결국 히사코를 향한 후타이밍의 사랑은 그녀의 “(…)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와 당신은 …… 다르니까요.”(101)라는 말과 함께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에서, 그의 슬픔이 단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고통과 슬픔이라는 감정적인 차원에만 머무른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후타이밍의 번뇌는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목된 “‘일본인’이 아니다”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성이나 폭력성으로 향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맞닥뜨리게 된 사태가 오로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라는 데에 대해서 특별히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도약을 꿈꾼다거나 타협하려는 시도도 없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아픔에는 통곡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우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체념한다. 또한, 후타이밍은 자신이 타이완 사람이며, ‘조상의 나라’라는 이름

으로 대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하지 않는다.

히사코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으로 괴로워하던 후타이밍은 실연의 아픔을 씻어버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일본 유학행을 결정한 다. 하지만 여기에는 별다른 민족적인 대의도, 문명의 정수(精髓)를 경험 함으로써 진정한 ‘일본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야심도 없다. 그저 낯선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단단히 다잡고, 앞으로 요긴하게 사용될 학문을 열심히 배워 출세하고 싶다는 젊은이의 순진한 기대만이 있을 뿐이다. 그는 “과학을 연구하는 학생”(116)을 목표로 일본으로 향하는 배 위에 몸을 실었다.

## 2.2. 타이완섬 외부의 삼항 구도

—‘일본인’VS 타이완인(중국인) VS‘중국인’

### 2.2.1. 당신은‘우리’와/가 다르다/아니다(이중배제)

도쿄에 별다른 연고가 없었던 후타이밍은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일당 사범학교 시절 동창생인 란(藍)의 하숙집을 찾아간다. 둘은 오랜 만에 만나는 것이었지만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며 그간의 회포를 푼다. 그런데 란이 던진 뜻밖의 충고는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자네가 타이완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않는 게 좋아. 타이완 사람들이 하는 일본어는 규슈 발음하고 비슷하니까 자네는 그냥 후쿠오카나 구마모토 출신이라고 하게.”(112)

그러고 나서는 천연덕스럽게 하숙집 딸에게 후타이밍을 자신과 같은 후쿠오카 출신(113)이라고 소개한다. 이는 중국재일동학총회(中國在日同學總會)가 주최하는 강연회장에서의 란의 처세와 함께 볼 때 꽤나 의미 심장하다. 강연회장에서 란은, 베이징어에 영 자신이 없어 주눅이 들어

있는 후타이밍과는 달리, 매우 유창하게 베이징어를 구사하며 대륙 출신의 유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후타이밍에게도 유학생들과 어울려볼 것을 권하며 친구로서 친근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후타이밍이 스스로 타이완 출신이라고 밝히면서 한순간에 대륙 유학생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자,

“바보 같은 자식! 일본 고등특무정책의 앞잡이질하는 일부 타이완 놈들이 샤먼(廈門) 일대에서 일본의 힘을 뒷배경으로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한다는 거 몰라서 그래?”

(…)

“이 멍청한 쫓내기 새끼!”(124)

라며 맹비난을 퍼붓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타이완 출신이라는 말에 중국인 유학생들로부터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응이 돌아온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란은 이곳에서는 자신을 대륙 출신이라고 소개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란은 일본인에게는 타이완 식민지인이기 때문에 받을지 모르는 괜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일본인으로 소개하고, 대륙 출신의 중국인에게는 일본의 ‘스파이’라는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을 대륙 출신으로 소개한 것이다. 완전히 상반된 란의 처세는 불필요한 성가심을 피하기 위한 한 젊은이의 유연하고 민첩한 행동 요령이겠지, 이는 거꾸로 ‘타이완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커다란 두 축의 외부 규정을 방증한다. 그중의 하나가 “식민지인·이등 국민·불완전한 ‘일본인’<sup>9)</sup>”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순결하지 않은 ‘중

9) 통상적으로 일본인은 일본 열도에 사는 사람,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 아마도 혈통을 지닌 사람 등을 뭉뚱그려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중국인 역시 청조(淸朝)의 유민(遺民), 중국 대륙에 사는 사람,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한족 혈통을 지닌 사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여기에서 ‘중국인’, ‘일본인’으로 표기한 것은, 이런 일반적인 용례와 구분하여, 혈통과 전통문화에 근거한 단일하고 순결한 중국인 혹은

국인·일본화된 ‘중국인’·일본의 스파이”이다. 바꿔 말해서, 타이완섬의 거주민들은 한편으로는 “A‘일본인’과/이 다르다/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B‘중국인’과/이 다르다/아니다”로 강제되고 있었다.

작품의 서사 공간이 타이완섬을 벗어나자 후타이밍의 존재적 지위는 매우 불안해진다. 그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감히’ 스스로를 일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작품에서 란의 일방향적인 ‘증언’을 제외하면 일본 본토에서 그를 ‘타이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한다든지 오해하는 인물이나 사건은 등장하지 않는다. 본토에 사는 일본 사람들의 “말투나 말씨는 타이완의 일본 사람들처럼 경박하거나 거칠지 않았다. 타이완에 사는 일본인들은 걸핏하면 타이완 사람들을 “니아(你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말도 들을 수 없었다.”(111) 후타이밍은 하숙집 주인과 딸 쓰루코(鶴子)에게 “첫날부터 자기가 타이완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주인집 식구들은 그가 타이완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을 뿐더러 그 때문에 특별히 차별 대우를 받지도 않았다.”(114) 심지어 쓰루코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과 후타이밍이 가깝게 지내기를 은근히 바라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가까워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끝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히사코와의 슬픈 결말은 그가 “‘일본인’과 다르다”는 “후타이밍은 타이완인(중국인)이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후타이밍은 스스로 그렇게 여겨왔던 것처럼 ‘중국인’으로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일본 제국이 개입한 타이완공동체는 대륙의 중국인들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혹은 순결하지 않은 ‘중국인’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대륙에서 타이완섬으로 건너 왔다는 조상들의 이야기는 그를 ‘중국인’ 속으로 편입시켜주지 못했다. 『아시아의 고아』의 후타이밍은, ‘일본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같은’ 혈통이라고

---

일본인이 존재한다는 공리(空理)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산물을 표시하기 위함이다.

믿은 대륙의 중국인에게서도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부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타이완인’은 “‘일본인’과도 다르고/아니고” 동시에 “‘중국인’과도 다른/아닌” 이중배제의 지대로 밀려난다.

이는 마치 ‘타이완인’을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는 어떤 뚜렷한 경계를 지닌 “C또 다른” 정체성으로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고아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타이완인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얘기되거나 혹자들에게서는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극복되어야 하는 무엇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C또 다른”이 오로지 안티테제로서 구성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무엇과/이 다르다/아니다”라는 명제는 그 자체로 “무엇”의 공고한 존재성을 보장한다. 즉, ‘무엇’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토대 위에서 ‘무엇’의 속성을 부정하는 논리 구조이다. 안티테제는 ‘무엇’의 존재 유무에 대한 의문을 과감히 생략한다. 이를 다시 작품의 맥락으로 가져온다면, “A‘일본인’과/이 다르다/아니다”, “B‘중국인’과/이 다르다/아니다”는 명제는 그 자체로 곧 A‘일본인’, B‘중국인’을 단일하고 균질적인 정체성 혹은 공고한 무엇으로 담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주의자의 허황된 주장처럼 천황을 정점으로 하여 야마토(大和)의 순수한 혈통이 일국(一國)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12세기 이후 홋카이도(北海島)라고 불리게 된 이 지역의 거주민들은(아이누アイヌ) 일본 역사의 거의 반에 걸쳐 야마토와 상업적인 교역 관계를 유지하며 독립된 생활 공동체를 영위하다가 1807년 에도 막부(江戸幕府)의 직할지가 되었다.<sup>10)</sup> 오키나와(沖繩) 역시 류큐(琉球)왕국이라는 독립된 왕조를 이루고 있다가, 1872년 9월 류큐 번(藩)으로, 1879년에는 다시 오키나와 현(縣)으로 47개의 현 중에서 가장 늦게 일본 열도에 편입되었다.<sup>11)</sup> 이들은 종족(ethnicities)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생활풍습, 언어가

10) 테사 모리스-스즈키 Tessa Morris-Suzuki(2004), 『변경의 창조-일본 북단 국경·아이덴티티·역사』,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정문걸 외 編), 문학과 지성사.

지 전부 아마토족과 다르다. 물론 중국 대륙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장족(藏族)의 티베트(西藏)나 위구르족의 신장(新疆), 소수 종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윈난(雲南)을 비롯한 대륙 남부의 거주민들은 한족(漢族)과 전혀 다른 고유한 언어와 문화, 관습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 정리하자면, 분명한 경계를 지닌 단일하고 균질적인 정체성으로 설명되는 '일본인', '중국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타이완인'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꽤 이른 시기부터 중국 대륙의 복건성(福建省)·광둥성(廣東省)지역의 일부 거주민들이 타이완 섬으로 이주를 시작한 것이 사실이지만, 본격적인 대거 이주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 모집을 통해서였다.<sup>12)</sup>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륙에서 온 이주민들이나 네덜란드인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타이완섬에 거주해온 선주민들의 존재이다. 이들은 족장을 중심으로 고유한 문화와 규범을 지닌 독자적인 생활 공동체를 유지하였으며, 네덜란드인들뿐만 아니라 대륙의 이주민들, 청(淸)의 관료들 그리고 일본인들과도 접촉하였다. 선주민들에게 있어 '타이완'·'타이완인'은 분명 한족(漢族) 이주민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취류의 이 작품은 소설 속 인물들의 배경 설명을 생략한 채, 후타이밍이 대륙에서 이주해 온 가문 출신이라는 정도만을 언급한다. 후타이밍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주변 인물들-예를 들어 란(藍), 쟁(曾) 훈도 등-그 누구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가는 이들 각각이 타이완의 장래를 도모하는 데 있어 태도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상상하는 '타이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일본인'/'중국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할

11) 카노 마사나오(鹿野政直)(2004), 『오키나와, 주변으로부터의 발신』,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정문걸 외 編), 문학과 지성사.

12) 주완요(周婉瑋)(2003),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신구문화사, pp. 36 - 64.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 혹은 '중국인' 속에 누구를 집어넣을 것인지 혹은 뺄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위는 실재한다. '다르다/아니다'는 언술을 거쳐 배제와 축출은 끊임없이 발현된다. 그러나 정작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지점에는 정체불명의 공리(空理)가 놓여 있다. 그리고 이 텅 빈 기호가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오염되지 않은' 무언가의 실재를 믿도록 강요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뒤집어진 인과관계가 교묘하게 원인이 '반드시 선재(先在)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2.2.2. 당신은 믿을 수 없다(이중감시)

작품은 강연회장에서의 사건을 끝으로 후타이밍의 일본 유학 생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리고 장면은 바로 타이완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있는 후타이밍에게로 넘어간다. 그의 귀향은 일본으로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요란하고 떠들썩한 환영식으로 마무리되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야릇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후타이밍은 돌아온 이튿날부터 백방으로 취직자리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렇게 되면서 주위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그에게 품었던 기대도 점차 실망으로 바뀌었다. (...) 이런 주위의 변화를 젊은 후타이밍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그럴수록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마치 함정에 빠진 사람처럼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초조하고 절망적인 기분이었다."(129) 타이완섬 안에서 후타이밍의 고민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볼 기회가 없는 젊은 청년의 깊은 한숨으로 집약된다.

한편, 타이완섬에서 그는 누구와도 소통하거나 교감하지 못한다. 그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정치운동에 투신한 동창생 란은 말할 것도 없고, 고향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회계를 보면서 친하게 지내게 된 농장 노동자들과의 사이에서도 메울 수 없는 거

리를 확인한다. 그는 자신이 고수하는 중용(中庸)의 세계관 때문에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란의 생각에는 선뜻 동조할 수 없다. 하지만 온순하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이나 농장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정서적 교감이 아니라 계몽가나 교육자가 느끼는 안타까움과 동정심이 앞선다. 후타이밍은 이 고립감과 외로움을 수원(隨園)과 연명(淵明)의 세계에 몰입하여 달래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곧 '새로운' '기회의 땅'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타이완섬 전체를 옥죄는 식민주의의 폭력과 억압이 강화되면서 후타이밍은 그에 대한 반발작용처럼 대륙으로의 진출을 더욱 강하게 동경하게 된다.

대륙을 향한 그의 갈망은 공학교 시절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쩡(曾) 훈도의 도움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해소되었다. 쩡 훈도는 타이완인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의 부당한 대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학교를 그만둔 인물이다. 당시 이 사건은 후타이밍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이후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다시 대륙으로 건너가 모 대학의 교수로 지내다가, 부친의 부고를 듣고 잠시 타이완에 들른 참이었다. 후타이밍을 만난 쩡 훈도는 그에게 대륙 진출을 권유하면서 국립모범여자중학의 수학교사로 추천까지 해주었다. “후타이밍이 대륙으로 취직자리를 얻어 간다는 말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다.”(167) 그 역시 “바야흐로 이 험소한 세상을 탈출할 때가 온 것이다.”(167)라며 매우 기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자는 ‘그의 기쁨’과 다음에서 밝히는 쩡 훈도의 포부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낙차에 주목하고자 한다.

① “우리는 어디에 가더라도 신용을 얻지 못해. 숙명적인 기형아 같은 존재지.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죄도 없는데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건 정말 부당한 거야. 그러나 할 수 없어. 어디까지나 끝까지 따돌림만 당하는 의붓자식처럼 비뚤어진 근성을 갖지 않으려면 말 없이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는. 중국 건설의 희생이 되겠다”

는 열정에서 우리는 절대로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177)

② “후군, 중국 건설은 기나긴 도정이네. 결코 초조하게 굴어서는 안 돼. (…)”(178)

①은 후타이밍이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쩡 훈도가 그에게 한 말이다. 여기에는 타이완 출신이라는 자신의 불안한 위치에 대한 자각과 함께 대륙과 자신이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의심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사고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리고 쩡 훈도의 이상과 포부는 실제로 국민당 정부의 외교부에서 일을 한다든지(201), 일본 제국과의 전쟁이 현실화되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국공연합전선의 근거지인 서북으로 탈출을 감행하는(239) 등 일관되게 유지된다.

이에 반해, 후타이밍은 일본 제국과 대륙, 타이완섬을 각각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타이완섬에 발을 내딛으며 다음의 표현을 사용한다. “이게 바로 고국의 모습인가?”(125) 반면, 대륙은 그에게 “바다 저편에 있는 선조들의 땅”(162)으로 불린다. 사전적 의미로 ‘고국(故國)’은 “(주로 남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조상 때부터 살던 나라”를 일컫는 말로,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라는 의미의 ‘조국(祖國)’과 정의상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조국’과 달리, ‘고국’은 회귀와 귀소의 방향성을 함축한다. 이는 곧 발화자의 정체성의 기반, 삶의 토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지시한다. 다시 말해서,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후타이밍에게 관념적인 ‘조국’으로서의 대륙이 아니라 타이완섬이 실질적으로 그의 경험과 기억, 사고를 구성해주는 토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대륙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다분히 문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②는 베이징어가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지지 않는데다가 하루 빨리 교

단에 서고 싶은 마음에 초조해하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후타이밍에게 쟁 혼도가 건넨 충고이다. '대륙에 건너온 직후'의 후타이밍의 근심이 전적으로 취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취직자리를 얻은 후'에 그를 괴롭힌 것은 슈춘(淑春)과의 사랑, 그리고 그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였다. 반면, 중국 건설이나 대륙의 미래에 대한 그의 생각은 매우 제한적으로 드러난다. 그나마도 외교참사 장(張)의 열변을 듣고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고뇌하며 공연히 고전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자신에 대해 강한 반성을 느"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그가 종사하는 제자 교육으로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라 생각"(228)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렇지만 이후 국내외 정세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후타이밍의 주변 상황 역시 뒤숭숭하고 어수선했고 그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학교 내에서조차 "주전론(主戰論)과 비전론(非戰論)의 두 파로 갈려 대립하고 종내에는 감정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사뭇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235)되는 상황 속에서도 "혼란에서 도망쳐 나오듯 후타이밍은 오늘도 푸창호텔(福昌飯店) 육층의 이 다방에 앉아 멍청하게 시간을 때우는 것이었다."(235)라는 문장 안에서 발견된다.

대륙으로 건너 온 후타이밍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운명을 고민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생활인에 더 가깝다. 처음부터 그는 자기 능력과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천지"(162)를 꿈꾸며 떠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자기편의대로 해석하고 간간이 그 해석 속에서 생활의 균형을 발견하는 일상을 되풀이하"(238)며 모든 결정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논리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있어. 중국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행동뿐이야. 자네도 빨리 관념의 탐을 나와 자네 자신의 가야할 길을 찾기를 바라네. 남 일이 아니야. 이걸 머지

않아 자네 자신의 운명이 걸린 문제야.”(240)

쨍 훈도가 서북으로 떠나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간절한 충고 역시 결국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망설이기만 할 뿐이다. 화자는 이를 두고 후타이밍은 쨍 훈도를 따라갈 만한 신념과 실천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을 첨언하고 있다(240). 그런데 쨍 훈도의 결정을 정답으로 두고 후타이밍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식의 접근은 그의 의식 속에서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던 대륙과 타이완섬 사이의 구별된 인식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게 한다. 앞서 밝혔듯이 그는 자신과 중국/대륙을 공동운명체로 묶지 않는다. 후타이밍에게 현실의 살아있는 중국/대륙은 “예비지식의 천박함과 진부함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는”(178) 매우 낮은 곳이다. 물론 그는 중국/대륙과의 관계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중국/대륙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지도 않는다. 중국/대륙은 타이완섬과 별개로 구분되어 인식된다.

① 그는 단숨에 칠언율시(七言律詩) 한 수를 읊조렸다. 거의 퇴고를 요하지 않는 시였지만 제 칠 구에서 ‘어찌 봉후를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리니’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자신은 엄연히 일본 국적이라 대륙으로 가는 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172).

② 그는 이제껏 타이완어는 본시 중국어에 속하니까 객가어와 민남어만 알고 있으면 그럭저럭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부닥치고 보니 자신의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180).

③ 후타이밍은 쨍의 그런 태도가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다.

‘모르지. 중국에선 보통 다 이런지도!’(185)

④ ‘중국 후로(風呂)도 아편 같은 게 아닐까?’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방인의 감각과 신경을 마비시켜 버리는 이 중국이란 사회의 불가사의한 동화작용에 관해 생각

해 보았다(191, 밑줄 인용자).

후타이밍의 사고에서 '중국/대륙'은 주체와 구분되는 객체로서-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어떤 대상으로서-등장한다. 쩡 훈도에서처럼 자기인식의 연장선 위에 위치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후타이밍에게 '중국 건설'은 문면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쩡 훈도의 굳은 결의는 그저 모호하고 막연하게 곁돌 뿐이다. 이는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쓰고 유죄되었다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을 때의 후타이밍의 선택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그는 누구의 밀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타이완 출신이라는 사실이 노출되면서 일본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받고 한밤중에 어딘가로 끌려간다. 여러 날 동안 감금되었다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빠져나온다. 사실 이것은 쩡 훈도의 충고대로라면 자신이 일본 스파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그는 쩡 훈도처럼 국공연합전선을 찾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후타이밍에게 그것은 선택이나 가정(假定)의 경우의 수에도 들지 못했다. 옥중에 갇힌 그의 머릿속에는 "쩡처럼 의지가 굳세지 못했다. 아무 생각 없이 (타이완섬으로) 돌아가고만 싶"(245, 괄호 인용자)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에게 중국/대륙은 '선조들의' 땅이라는 피가 통하지 않는 박제된 관념의 차원을 넘어서지 않는다.

결국 그는 일본 배인 간코마루(漢口丸)를 타고 상하이로 잠입해 들어갔다 타이완섬으로 되돌아간다. 그런데 후타이밍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던 간코마루 선장의 신랄한 비아냥거림은 흥미롭다.

"그러니까 자네들은 이런 때만 일본인 국적을 내세우며 도움을 청하는 것이군 그래. 정말 뻔뻔스럽군, 뻔뻔스러워."(253)

정리하자면, 후타이밍은 자신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인이며 일본 국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더불어 대륙과의 친연성 또한 거부하지 않는다. 게다가 자신이 타이완섬 출신임을 숨기지도 않는다. 이때 타이완섬은 특수한 경험의 공간, 기억의 공유지로서 중국/대륙과는 변별되는 역사 공간이다. 즉, 타이완섬은 후타이밍의 정체성을 구성해주는 최종심급으로서 중국/대륙의 일부라는 단순한 물리적 지대에 그치지 않는다. 이처럼 그는 자신과 연루된 모든 관계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그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문제의 시작점이다. 사실 쩡 훈도의 마지막 말은 그를 둘러싼 관계성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이것은 'A 아니면 B'라는, 중간지대/교섭지대를 허용하지 않는 양자택일의 선택이다. '일본인'이 되든지 '중국인'이 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선택과 부정을 피할 수는 없다 (앞서 다루었듯이, '일본인', '중국인'이 공리(空理)에 지나지 않더라도 선택과 배제는 무한히 재생되며, 이 선택과 배제의 행위는 효과적으로 공리에 대한 의문을 은폐한다). 하지만 후타이밍은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망설이고 머뭇거리며 계속해서 선택을 지연할 뿐이다.

끝까지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후타이밍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당신은 믿을 수 없다"는 통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시의 시선 아래에 간혀 움쩍달싯하지 못한다. ① 난징의 국민당 정부는 일본 스파이라는 의심으로 그를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후타이밍은 그들에게 중국 건설에 대한 자신의 거짓 없는 진정을 토로했다(242, 밑줄 인용자). 그의 호소는 분명 사실이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상하이 상황 역시 난징과 다르지 않다. 한밤중에 국민당 정부 요원들에게 연행되었던 후타이밍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타이완인 행불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254, 밑줄 인용자)였다. ② 게다가 옆친 데 댈친 격으로 일본 관헌들은 공동 조계지에 있는 타이완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255). 그는

“양심에 가책이 될 만한 것은 없었지만”(255, 밑줄 인용자)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다. “거짓 없는 진정”(242)과 마찬가지로 거리낄 것 없다는 그의 고백 역시 분명 거짓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대륙과 일본 ‘모두에게’ 그는 떳떳하다. 왜냐하면 후타이밍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고 결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 없는’ 자이다. 적과 아군 ‘밖에 없는’ 살벌한 무대 위에서 그가 선택하기를 거부한 탓이다. 양쪽 모두에게서 그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언제라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힘들게 돌아온 타이완섬에서도 그는 감시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하차했던 타이베이에서 후타이밍은 “눈빛이 날카로운 까무잡잡한 피부의 남자 하나와 마주쳤다. 그 사내는 버스 안에서도 또 찻집에서도 후타이밍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시먼시장(西門市場)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도 역시나 그 남자를 볼 수 있었다.”(258)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잠시 남부로 여행하게 되었을 때조차 집요하게 따라붙는 시선을 떼어낼 수는 없었다. “훅 뒤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한 남자가 짹째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는 게 보였다. (···) 그리고 (후타이밍은: 인용자) 열차가 도착하기 무섭게 제일 먼저 열차 안으로 들어갔다. 역시 그 남자가 옆 칸에 타고 있었다. 거쳐 가는 행선지마다 남자는 그렇게 그림자처럼”(265) 후타이밍을 쫓아다녔다.

### 2.2.3. ‘사이’에 끼어 있는 자

흥흥하게 타이완섬을 감돌고 있던 전운(戰雲)은 결국 대륙의 루커우차오(盧溝橋, 1937년 7월 7일)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으로 인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러자 후타이밍의 운명은 또다시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어느 날 날벼락같이 그를 해군 군속으로 징집한다는 영장이



날아들었다. 후타이밍은 일본군에 소속되어 중일전쟁이 한창인 대륙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군대 소집에 응한 후타이밍은 군속의 신분으로 광둥(廣東)의 어느 한 지역에 배속되었다.”(281) 그는 그곳 주민들과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무언의 저항 같은 것”(281)을 느꼈다.

하루는 광둥 시내를 지나다가 태양열이 뜨겁게 내려쬐는 다리 근처에서 건장한 체격의 한 사내가 철사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후타이밍은 애처로운 마음에 가엾은 사내에게 자신의 수통을 입에 대어주고 남아 있는 은단까지 모두 털어 주었다. 하지만 “이 사내는 얼마 후면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더위 때문에 말라 죽을 것이다. 자신의 작은 자선도 결국 이 사내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283)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주민들의 뉘치 모를 적의를 대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자신의 진정을 알리고 싶었”지만 “답답한 침묵의 울타리에 어쩔 수 없이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282, 밑줄 인용자)는 그의 고백에서도 그대로이다. 후타이밍은 줄곧 외부 세계에 대해 거의 ‘0’이나 다름없는 개인의 역량을 한탄한다. 그는 외부 세계의 무자비한 잔혹성과 폭력성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개인의 비극성이 자신의 운명이 되리라는 사실을 예감하고 있었다.

해군 군속으로 징집된 후타이밍은 소속된 부대가 항일 테러와 관련된 용의자를 검거하면, 그들을 취조하는 동안 통역으로 참석해야 했다. 전쟁에서 항일 테러리스트와 일본군은 서로 상대를 제거해야 하는 적으로 맞서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타이밍의 위치는 매우 문제적이다. 항일 테러리스트는 중국인이며 중국군이다. 반면 일본군 장교는 일본인이며 일본군이다. 하지만 후타이밍은 (중국/대륙을 ‘조국’이라 부르는 타이완 출신의) 중국인이며, (일본 제국 식민지-타이완 출신의) 일본군이다.

그는 이곳저곳에 ‘동시적으로’ 끼어 있다. 여기에서 “중국인=중국군”, “일본인=일본군”이란 공식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매우 분명해 보였던 “중국인 VS 일본인”, “중국군 VS 일본군”의 대립은 완성되지 못한다.

후타이밍의 존재는 “중국인=중국군”의 완결을 막는다. 마찬가지로 “일본인=일본군”이라는 경계가 닫히지 못하도록 한다. 그는 “중국인=중국군” 속에 일본군으로 끼어 있는데다가, “일본인=일본군” 안에서는 중국인으로 존재하면서 양편 모두를 불완전하게 만든다. 그는 단순히 양편의 언어를 원활하게 바꿔 옮겨주는 텅 빈 통로가 아니다. 그는 양편이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직접 말을 주고받는다 느끼도록 자신의 존재를 투명하게 지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뒤섞이고 겹쳐진’ 지대의 존재를 숨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후타이밍은 용의 자들의 손에 묻은 기름을 어떻게든 총기의 기름으로 단정 지으려는 일본군 장교를 만류한다. 그러나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침묵뿐이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넌 잡자코 통역이나 해, 알았어? 상관의 명령이다!”(286)

‘통역’이라는 발화 행위가 경유하는 중첩지대는 철저하게 은폐를 강요당한다. 중첩지대는 모순되는 대립물의 양립 가능성을 담보한다. 그러니까 단일 선택과 배제가 만들어놓은 ‘폐쇄된’ 단일성이 아니라 이중 선택 혹은 다중 선택이 얼마든지 허락되는 ‘열린’ 동질성의 공간이다. 그러나 후타이밍이 서 있는 이 중첩지대는 거부되고 발화는 금지된다. 양편이 뚜렷한 경계로 대립하기 위해서 겹치고 뒤섞인 지대는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발을 딛고 서 있는 후타이밍은 격심하게 동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죽음을 맞는 항일 테러리스트들의 정신적 안정(287)과 매우 대조적이다. 그들에게는 제거해야 하는 적이 분명하고, 지향하는 목표 또한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후타이밍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그는 자기 안에 이미 적을 포함하고 있다. ‘나와 적의 구분은 모호하고 대립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적을 제거하는 일은 ‘나’의 바깥에서 일어

나는 외부적 행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타이밍은 자기 분열을 경험하는 데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그 날은 구국의용대 소속이라는 테러리스트 열 명이 체포되어 왔다. (…) 사형 집행은 바로 그날 오후에 이루어졌다. (…) 사형이 집행되는 동안 후타이밍은 반실신 상태로 엄습해오는 오한과 맞서고 있었다. 어떻게든 몸을 지탱해보려 하지만 이미 몸 전체에 파고들어 온 지독한 오한은 그를 계속해서 부들부들 떨게 했다. (…) 그날 저녁부터 후타이밍은 고열에 시달리며 몸져누워 버렸다.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의식은 혼미해서 끊임없이 헛소리만 지껄여 댔다(287~290).

후타이밍은 중국인이면서 중국군(항일 테러리스트)을 죽이는 데 관련되고, 일본군이면서 일본인(일본 장교, 일본 병사)에게 적대적인 반감을 품는다. 그는 비단 “전선(戰線)에서 겪게 되는 이상한 체험의 연속, 극렬한 정신적 동요, 거기에 더한 육체적 피로”(290)만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다. 그는 적을 파괴하는 행위가 자신이 파멸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적이 제거되면서 동시에 자기 파괴가 시작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사이에 끼어 있는 자”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다. 어느 한 편을 철저히 부정해야 하거나 양편으로 처참하게 찢기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작품은 타이완인/타이완공동체의 불행한 지위를 애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타이완섬으로 송환된 후타이밍에게서 “중국인 VS 일본인”을 비껴난 새로운 의지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후타이밍에게 송환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고향에서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조금씩 회복되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가 회생(回生)한 그에게서는 과거와는 달리 식민주의에 대한 분노와 저항심이 두드러진다. ① 부당한 수조(水租) 징세를 따지기 위해 수리 조합을 찾아가 조합장과 담판을 짓는가 하면(296~299),

② 보정(保丁)인 형 즈강(志剛)이 쌀 공출 문제를 두고 어머니 아차(阿茶)를 힐책하자 물러서지 않고 대든다(305~308). 이는 과거에 사탕수수 사업으로 집안의 묘지 바로 옆이 훼손된 상황에서도 “상대가 폭력적으로 나오는 이상, 더 이상 뭐라고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분한 눈물을 삼키며 그대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161)고 체념하며 물러서는 과거의 모습과 정반대이다. 또, 즈강이 “신체제에 훌쩍 빠져 부지런히 생활 개선”(275)을 한다며 우쭐거리는 모양새가 못마땅하면서도, 웬만하면 형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되는 대로 장단을 맞춰주었던 것과는 분명 다르다.

후타이밍은 부조리한 식민주의적 사회 기제와 폭압적인 지배 방식, 차별적인 이중 구도에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한다. 객관적인 현실 상황/조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저 번민하다 주저앉고 마는 방관자이기를 거부한다. 그런데 이때 그의 태도는 “식민주의/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지식인”이라는 토대 위에 입각해 있다. 결코 단순히 일본인에 대항하는 ‘중국인/한족(漢族)’의 입장 위에서 있지 않다. 한족(漢族) 내셔널리즘/중국 내셔널리즘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사토우(佐藤)가 그의 비판과 저항의 움직임은 함께 도모하는 조력자로 등장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사토우는 후타이밍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 위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인으로, “날카로운 비판력과 통찰력”(339)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후타이밍에게 잡지 발행을 통해 “극단적 언론 통제 아래에서 최대한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나름대로 모종의 역할을”(352) 꾀하려는 의지를 밝힌다. 후타이밍은 “사토우의 편집 방침에 따라 자료를 모으기 위해 타이베이의 지식인을 방문하는”(353) 일을 하며 잡지 발행에 참여한다. 이는 식민주의/제국주의에 대한 후타이밍의 비판 정신이 최초로 사회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과거에 그는 식민주의의 부조리와 폭력성을 맞닥뜨릴 때마다 체념/회피하던지 분노/절망하던지 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소모적으로 해소하는 데 머물렀다.

그런데 그런 그의 저항과 비판 정신을 공적인 영역과 연결시켜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길을 열어준 인물이 바로 사토우인 것이다.

사토우는 세계 전세(戰勢)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뛰어난 통찰력으로 내다보고 있었다(353). 당시 타이완 문학봉공회(文學奉公會), 신문/언론사를 드나드는 인물들의 허위와 위선적인 면면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꿰뚫어보았다(355). 또, 타이베이제국대학이야말로 이리페의 본거지, 곧 식민지 착취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정신적 무장의 본거지임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다(364). 그는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잡지를 발행함으로써 식민주의/제국주의, 나아가 일본의 파시즘적인 국가주의에 정면으로 저항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작품에는 황민화/황민정책,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시류에 휩쓸리고 마는 타이완인들이 적잖이 등장한다. 후타이밍의 형 즈강을 비롯해 이십 년째 미곡협회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나카지마(中島), 공학교 시절 동료였던 리(李) 훈도 등이 그러하다. 나카지마는 자신이 만년 임시직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황민화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그것에 매진하려는가 하면(328), 리 훈도는 황민화운동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국어’가정화에도 참여하고, 심지어 요시무라(吉村)로 개성(改姓)까지 했지만 “결코 ‘일본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공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371). 이들은 황민화가 ‘약속하는’ 희망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타이밍과 사토우의 의기투합은 세계를 향한 같은 이상과 가치관, 시대적 양심에 기대어 성사되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후타이밍이 적극적인 저항 의지를 획득하게 된 데에는 개인적인 분노를 뛰어넘는 반(反)식민주의/반(反)제국주의-다시 말해서, 서슬 퍼런 시대정신이 놓여 있다. 결코 중국인으로서의 애국심이나 불멸하는 한족(漢族)의 얼에 간혀 있지 않다. ‘중국인/한족(漢族)’이라는 내셔널리즘의 좁은 틀은 이미 벗어난 지 오래다.

이후, 사토우는 일본의 패전을 예감하고 “새롭게 일어날 움직임에 대비”(366)하기 위해 본토로 돌아갔다. 한편, 후씨 집안에는 뜻밖의 불행이 닥쳤다. 후타이밍의 이복 동생인 즌난(志男)이 노무봉공반(勞務奉公班)에 강제로 동원되었다가 병을 얻어 죽은 것이다. 즌난이 허망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얼마 되지 않아 후타이밍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가 대청 벽에 “니야 니야 너는 어찌 하리니?/노예 생활의 그 깊은 한을/횡포한 야만의 무리들을 너는 또 어찌하리니?/동지여 돌아오라! 옛 산하로/일어나라, 육백만 도민이여! 총궐기하라!/대의를 위해 죽기를 뜨거운 피로 맹세하자”(382)는 시구를 써 놓았다고 하는가 하면, “저 놈들은 말끝마다 국가, 국가라고 떠든다(…)/국가의 힘을 빌어서/자기만 영화를 탐하려고 하는 놈들이다/백주 대낮의 강도 놈들이다(384)”하며 쏟아내는 욕설과도 같은 말들이 이상하게 사람들의 폐부를 찌른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희한하게도 이 미치광이의 말은 ‘정상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하는 식민주의자/제국주의자를 향한 신랄하고 직접적인 비판이다. 후타이밍은 광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을 세상에 대고 거침없이 말한다. 그러므로 그의 광기는 앞서 전장에서 경험한 자기분열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자기분열은 “일본군 VS 중국군”, “일본인 VS 중국인”이라는 이항구도 아래에서 강요된 자기파멸의 경험이었다. 반면, 여기에서의 광기는 어떤 도약 상태이다. 내셔널리즘의 “일본인 VS 중국인”이든 식민주의/제국주의의 “식민자 VS 식민지인”이든 자신을 강제하는 모든 이항대립을 거부하는 동시에,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의 분노어린 일갈이다. 그의 광란은 그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비판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식민주의/제국주의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 3. 나가며

작품은 이후로 후타이밍의 행방을 정확히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후 문만을 전해준다. 그의 이 묘연한 행방을 두고 적지 않은 학자들이 한족(漢族)의식의 회복, 고아의식의 극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작가가 후타이밍의 조력자로 일본인 사토우를 설정한 점이나 사토우와 대비적으로 배치시킨 황민파들의 현실 추수적인 상황 논리를 눈여겨볼 때, 작가의 저항과 비판의식은 내서 널리즘의 경계를 이미 넘어 있다고 판단된다.

우쥬류의 『아시아의 고아』는 분명 타이완인/타이완공동체의 곤경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특정한 경계를 지닌 타이완인/타이완의식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대륙의 한족 '중국인'과도 다르고 식민지였던 아마토족 '일본인'과도 다른 제3의 무엇을 정의내리고 있지 않다. '중국인', '일본인'이라는 균질하고 단일한 테두리가 존재하지 않듯이,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이미 이데올로기적이듯이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타이완인' 역시 공리(空理)이다. 중국 대륙을 얘기하려면 타이완섬과 일본 열도를 빼놓을 수 없고, 일본을 얘기하려면 마찬가지로 중국 대륙과 타이완섬을 떼어놓고 시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를 함께 얘기해야 한다. 이들은 서로를 설명하는 술어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경계를 긋자 비극이 벌어졌다.

『아시아의 고아』는 바로 그 비극의 한가운데를 겨냥하고 있다. 후타이밍은 '일본인'으로부터 배제되고 '중국인'으로부터 거부된다. 동시에 그는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어느 편인가를 분명히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후타이밍은 머뭇거리며 선택을 지연하고 결국 이편저편으로부터 가해지는 이중 감시의 시선에 갇혀 움짱달짝하지 못하게 된다. 이후 그는 중간지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중국인' VS '일본인'"의 이항대립

위에서 양쪽으로 처참하게 찢어지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이 파괴의 경험을 밟고 이항대립을 가로지르는 움직임의 시도하기에 이르는데, 식민주의/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반(反)식민주의적/(反)제국주의적 연대가 곧 그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식민주의에도 내셔널리즘에도 발목 잡히지 않는 해방의 지점인 것이다.



## 참고문헌

### 【자 료】

吳濁流(2012), 송승석 譯, 『아시아의 고아』, 도서출판 아시아.

### 【논 저】

- 니콜러스 로일(2007), 오문석 譯, 『자크 데리다의 유령들』, 앨피.
- 위르겐 오스터함멜(2006), 박은영·이유재 譯, 『식민주의』, 역사비평사.
- 정문걸 외 編(2004),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 주완요周婉筠(2003),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신구문화사.
- 프란츠 파농(1998), 이석호 譯,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 陳少延(1977), 『臺灣新文學運動簡史』, 聯經出版社.
- 葉石濤(1987), 『臺灣文學史綱』, 文學界雜誌社.
- 鍾肇政(1979), 「日據時代臺灣文學的盲點-對『皇民文學』的一個考察」, 『聯合報』.
- 卢斯飞(1996), 「寒凝大地发春华-论吴浊流的知识分子题材小说」, 『广西教育学院学报』 2期.
- 王宜春(2002), 「灵魂终不灭:“孤儿”寻求回归“母亲”的怀抱-浅析吴浊流」, 『《亚细亚的孤儿》』 3期.
- 刘红林(2005), 「“孤儿意识”论-吴浊流《亚细亚的孤儿》分析」, 『华文文学』 3期.
- 河原功(2007), 張文薰 譯, 「吳濁流的《胡志明》研究」, 『臺灣文學學報』 10期.
- 曹惠民(2010), 「萧条异代不同时-《亚细亚的孤儿》《倪焕之》对谈」,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6期.
- 張暢·陈颖(2011), 「言说空间的折叠: 日据时期台湾小说中的隐喻」, 『泉州师范学院学报』.
- 垂水千惠(1995), 「日本統治と皇民文學-陳火泉の場合」, 『台湾の日本語文學』, 五柳書院.

**244** 인문논총 제71권 제2호 (2014.05.31)

원고 접수일: 2014년 03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4년 04월 17일

게재 확정일: 2014년 04월 30일

ABSTRACT

---

Identity struggles of the colonized in the Taiwanese novel  
*Orphan of Asia*

Shin, Min-young\*

Wu Zhuoliu's novel *Orphan of Asia* (1943~1945) was written in Japanese, the national language under Japanese occupation; the novel's protagonist is Hu Taiming, an intellectual from Taiw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Existing studies on this novel have not gone beyond Han racial nationalism, interpreting Taiming's transition as a recovery of Han racial consciousness or as an overcoming of the consciousness of having been orphaned. It should not be overlooked, however, that the novel was written in the 1940s, which means that about forty years had passed since colonialization took place. Therefore, the issues about which the young intellectuals of the 1940s agonized over do not necessarily correspond with so-called nationalistic tendencies. They were not only the colonized but also the youth who desperately explored what to do and how to live in the given situation. On the other hand, it should not be ignored that the setting for the novel is Taiwan, a nation which need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its relationship with imperial Japan and mainland China. Identities of the colonized Taiwanese show different aspects in and out of the island

---

\* Comparative Literature Program,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of Taiwan, respectively. While the binary structure of the colonizer versus the colonized and Japanese versus Taiwanese (Chinese) is noticeable in the island of Taiwan, the situation becomes more complex outside of the island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third component that is mainland China. Taiwan was facing double exclusion and double surveillance, and was compelled as an in-between being by both mainland China and Japan. Through the protagonist, Hu Taiming, *Orphan of Asia* depicts a long journey of seeking one's self-identity and, simultaneously, shows aspects of liberation beyond colonialism, imperialism and nationalism.